

‘장안산 억새숲’ 복원 나선다

장수군,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공모 선정… 20억원 투입 억새 20만본 식재 등 추진

장수군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6년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장안산 억새숲에 억새 20만본을 식재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안산은 해발 1,237m로 백두대간에서 떨어져서 우뚝 솟은 금남호남정맥의 종산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산림생태계를 자랑한다. 매년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찾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명산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번 대규모 산림복원사업은 생태적 가치가 높지만 훼손이 심한 산림을 복원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지 적정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복원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다.

장안산 억새숲은 자연경관, 생물다양성, 관광자원 등의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사업지로 확정됐으며 2026년부터 3년간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장안산 억새산림을 복원할 계획이다.

주요 복원 계획은 △억새자생지 복원 △훼손지 정비 및 식생복구 △생태



장수군 장안산 억새숲

탐방로 및 목재전망대 조성 등이며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관을 이루던 억새군락지를 되살리고 이를 생태관광자원으로 연계해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장안산 억새숲은 생

태적, 경관적으로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우리군의 대표 명산이다”며 “이번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장안산 억새숲이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생애 첫 투표로 시작하자!’

최훈식 장수군수, 고3 유권자 대상 투표 참여 캠페인 펼쳐

장수군은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을 맞아 장수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 독려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리고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훈식 군수는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생애 첫 투표로 시작하자!’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최 군수는 “생애 첫 투표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민주주의의 첫걸음이자 성인의 책임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순



장수군은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을 맞아 장수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 독려 캠페인을 전개했다.

간’이라며 “고3 유권자 여러분의 생애 첫 투표가 자랑스럽고 의미있는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청소년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훈식 군수는 지난 28일 남원시청의 지목을 받아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독려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바 있으며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의 중요성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음 주자로 순창군수를 지목해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CJ푸드빌, 여름딸기 유통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은 29일 CJ푸드빌과 여름딸기 유통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인에는 △무주 여름딸기 홍보 및 유통활성화 △고품질 생산 공급체계 구축, △농산물 연계형 봉사활동 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명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으며, CJ푸드빌(무대류트, 빙스, 더플레이스 등)은 당도 높은 고품격 여름딸기를 채취 등 음식 등으로 전국 소비자들에게 전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여름딸기가 반딧별’과 낙화놀이·대관동 등 지역 고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생산과 품질 관리,



무주군은 29일 CJ푸드빌과 여름딸기 유통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발맞춰 고품격을 활용한 스마트팜 확대에도 주력해 지방소멸 위기,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격적인 수확(연 320만 이상

수확 전량)시기에 들어간 무주 고랭지 여름딸기(고슬, 무하, 복하, 정하, 미하 등)는 무풍면 삼거리 해발 600m에 위치한 재배단지에서 재배해 모양이 고르고 당도가 높다.

/무주=전문선 기자

‘Better里 in 자연특별시 무주’ 사업 본격 추진

무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도내 인구감소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확대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무주군은 ‘Better里 in 자연특별시 무주’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체류형 관광모델을 제시해 호평

받았다. 군에 따르면 ‘Better里 in 자연특별시 무주’는 무주다운 생태·전통 자원과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골자로 한다. 특히 6개 읍면별 차별화된 트래킹 코스를 기반으로 한 ‘백팩킹 페스티벌’과 낙화놀이·대관동 등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아웃도어 페스티벌’을 운영한다는 계획이어서 체

류형 관광을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은 무주의 자연과 문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직면해 있지만 앞으로도 무주다운 모습으로, 무주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사전투표 참여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9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이 무주군 무주를 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추정 5256억여원 확정

무주군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통과

무주군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본예산 대비 510억여 원 증가(10.8%)한 총 5,256억여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9일 무주군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무주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부분이 4,667억여 원으로 449억여 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 부분은 64억 원이 증가한 588억여 원이다.

특히,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및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은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지원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무주사랑 상품권 운

영 9억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 및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 등 보건·복지 분야 사업(64건 / 14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억 원, △소상공인안전기금 1억 원, △하천재해예방 35억 원, △주민편익 지원 43억 원, △무주대관보이랜드 연계 관광 활성화 등 문화·관광 분야 사업(66건 / 118억 원)등이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및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은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지원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특수목적 관광 패키지’ 생태계 구축 본격화

진안군은 오는 2026~2027년 ‘진안방문의 해’를 앞두고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5월부터 ‘진안고원 명품 패키지 특수목적 관광코스 개발·운영 사업’을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진안군이 보유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계절별로 특화된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기획해 총 4종 7개 코스로 운영한다. 주요 테마는 △아웃도어·액티비티 투어 △로컬 투어 △웰니스 투어 △미식 투어 등으로, 관광객들이 사계절 내내 진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하고, 지역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여행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진안군은 이번 사업을 ‘진안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지역 관광의 전환점으로 삼고, 이후에는 ‘MY진한~진안여행’이라는 통합 관광 브랜드를 정립해 개별여행객 중심의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진안만의 색깔이 담긴 지속 가능한 여행 문화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패키지 구성은 계절별 테마에 따라 다양하다. 봄·여름에는 진안고원길과 야행와 트래킹, 계곡 하이킹 등 액티비티 중심의 아웃도어 투어가 운영되며, 가을에는 국악 와인 열차 탐승과 함께하는 ‘촌스런 마을 여행’, 산골 낭만 캠핑, 백패킹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로컬 투어가 펼쳐진다.

여기에 진안고원치유숲 체험, 마이산 및 백운동 계곡 단종길 감상, 노포 맛집 탐방과 재래시장 체험 등이 어우러진 웰니스·미식 투어가 더해져 진안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됐다.

진안군은 이러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소셜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등 디지털 채널을 적극 활용해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고, 연중 다양한 타깃층을 아우르는 방문객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실시설계 최종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29일 군청 상합실에서 ‘진안고원 스마트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농업을 선도할 기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보고회에는 전준선 군수를 비롯해 군 관계자와 용역사, 농업 관련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먼저 용역사 측은 △스마트팜 단지 기본계획, △기반조성 및 하우스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청년농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이후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전준선 군수는 “진안고원 스마트팜은 지역 농업의 혁신과 더불어 청년농 유입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진안에 정착하고 미래 농업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엔 조성되는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는 마령면 평지리 일원 6.9ha 규모로 인력양성 스마트팜, 과채류·



엽채류 재배단지, 부지 분양형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외부 청년농업인을 유치해 지역 활력을 높ی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스마트팜 조성지 인근에 조성되는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해 스마트팜 단지 임차인을 1순위로 입주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청년농의 입주 여건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진안군은 보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설계를 최종 보완한 후, 관련 법·제도를 거쳐 오는 6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 농업단지로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음식점·숙박업소 위생 중점 점검 실시

진안군은 방문객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군에서 열리는 ‘진안홍삼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및 ‘유소년 축구대회’ 등 주요 체육행사에 참가하는 선수와 대회 관계자, 진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업소의 위생 안전 상태와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준수 여부 △숙박업소 내 객실과 침구류의 청결 상태 및 소독실시 여부 △업소 내 신고증 및 요금표 게시 여부 △대회기간 중 요금 인상 자체 △숙소 예약 문의 시 친절 응대 △숙박시설 안전점검 등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의회 제316회 임시회 폐회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은 29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변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심사·의결하며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동)의 심사 결과 요구액(525,578,653천원) 대비 0.004%(19,800천원) 삭감된 525,558,853천원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특히, 이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합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무주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합’ 및 ‘제조물의 결합’ 즉각 인정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금단의 진료비 부담과 국민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손해배상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금연환경 조성 강화를 요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5분 발언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어린이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원활한 교통흐름과 운전자 편의를 증진시키자고 제안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29일 제3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무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대별 속도제한을 속도제한으로 편의를 더하다!’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단속을 심야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의 효과로 △단속 실효성 향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불필요한 교통정체 완화로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안전차 감감대 형상으로 법규 준수를 증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은영 위원장은 시간대별 교통환경 및 통행량 분석,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시간 및 기준속도 설정,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거쳐 조속히 이 제도를 시행하자고 제차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